

장백산천지

제 36 호

2007년 6월 8일

금요일

공산당의 ‘무신론’은 민족 문화를 훼멸시키는 독약 (련재--1)

1. 중국 전통문화는 반신(半神) 문화

중국 전통문화는 세계 문명의 보물고이자, 고대 문명 중 현재까지 전해진 얼마 되지 않는 정화이다. 중국 전통문화는 오천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지난 번 인류의 문명, 즉 사전문화 (史前文化)의 유산 (遺產)인 태극(太極), 하도(河圖), 락서(洛書), 주역, 팔괘 등을 계승하였다. 매번 왕조가 바뀔 때마다 강산의 주인이 바뀌고 궁전은 붕괴되었지만 문화는 여전히 남았다. 비록 낯선 이민족들이 중원 (中原)을 통치했어도, 정복자가 점령한 것은 유형 (有形)의 땅과 재물일 뿐이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중국문화에 정복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중국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문화 현상이다. 이 신기한 땅을 ‘신주(神州)’라고 명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반고가 천지개벽을 일으키고 여와가 흙으로 사람을 만든 후 ‘삼황(三皇)’이 강림하여 혼돈 상태에서 처음 생긴 인류를 이끌고 몽매(蒙昧)한 시대를 벗어나게 하였다. 사람과 신(神)이 공존하여 신이 문화를 전할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 위험에 처했으나 여와가 하늘을 보충하여 인류를 붕괴의 위험에서 구해주었다. 이로부터 사람과 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확립되어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숭배하는 것이 고대인들 속에 뿌리 박게 되었다.

황제(黃帝)가 세상에 나와 오천년 반신 (半神)문화의 서막을 열어 놓았다. 탁록(涿鹿)에서 싸워 둇 부족장들을 이기고 판천(阪泉)에서 회맹(會盟)하여 중국을 통일하였다. 백관(白官)을 세우고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건곤을 안정시켰고 봉선(封禪)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천하를 크게 다스렸다. 가옥을 만들고 농업을 가르쳤으며 역법(歷法)을 정하고 문자를 만들었으며 천지를 관찰하고 천하에 도(道)를 행하여 5천년 찬란한 문화를 열어 놓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황제가 득도(得道)에 성공하여 만민(萬民)이 보는 앞에서 사람이 신이 되는 장관을 펼쳐보였다는 것이다. 형산(荊山)에서 솔[鼎]을 만들고 백일비승(白日飛昇)하여 중화 민족의 가장신성(神聖)한 한 장면,

즉 신이 사람을 창조하였을뿐만 아니라 사람도 도를 얻으면 신이 될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춘추시대 (대략 기원 520년 경), 란세(亂世) 중에 성인(聖人)이 세상에 내려와 함곡관 (函谷關) 아래에서 로자가 『도덕경』 오천자를 남겨 놓았다. 이 책은 수도(修道)의 오묘한 신비를 알려 주었을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서 중국 문화와 지혜의 원천이 되었으며 인류에게生生세세 도를 찾고 회귀하는 종자를 심어주었다. 이리하여 생명, 인체, 우주에 대한 완전하고 계통적인 인식이 이로부터 발전되었으며, 사람은 본래 하늘에서 왔기에 하늘로 돌아가야 하며, ‘천인합일 (天人合一)’하는 수련의 문화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게 되였다.

그 뒤를 이어 위인(偉人) 공자(孔子)가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몸소 체험하고 힘써 실천하여 ‘인, 의, 례, 지, 신’으로써 사람과 사람사이에 또 사람과 사회의倫리 관계를 다졌으며 유가(儒家) 문화를 중국정통문화로 되게 하였다. 그후 불교가 서역을 통해 중원으로 전해 왔다. 불광이 비추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니, 부처를 숭배하고 부처를 수련하는 좋은 기풍이 왕성해졌다. 이리하여 ‘유(儒), 도(道), 불(佛)’은 중국의 삼대정교 (正教)체계로 성립되었을 뿐만아니라, 중국 전통문화의 주축과 기초가 되여 인류를 위하여 한막(幕)한막의 눈부신 문화를 연출하였다. 매 왕조마다 모두 운명을 다 할때가 왔어도 문화만은 도리어 완성한 생명력으로 보존되어 왔다.

파룬궁대오가 3 번이나 캐나다 대시위행진 최고상을 탔다

지난 5월 20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파룬궁 학원들은 주최측의 요청을 받고 Hyack 국제절시위행진에 참가하여 이번까지 3 번이나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487 명 촌민들이 쓴 공동서명편지

지난 5월 1일, 료녕성 강평현 도란촌 대법제자 손련강과 정영안은 진상족자(条幅)를 걸다 조양 개발구 파출소 련방대원들에게 랍치되었다. 가족들이 여러번 현 공안국에 찾아가 사람을 내놓으라고 제출했지만 국장마저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487 명 촌민들이 유관부문에 련맹으로 편지를 써서 불법 랍치된 파룬궁 학원 손련강과 정영안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폭로

박해

연변 박해 소식

■ 지난 5월 17일 룽정시 파룬궁학원 림옥설은 시장에서 진상을 이야기하다 한 악인의 신고로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현재 연길시 수용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경에 화룡시파룬궁학원 김복전은 연길에서 룽정시공안국악경들에게 체포되어 파룬궁책과 컴퓨터를 빼았겼다.

■ 지난 5월 20일, 왕청현 파룬궁학원 곡흥무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악경 란청우는 그를 보고 《너희들은 인터넷에서 우릴 폭로해도 우린 더 힘을 내여 너희들을 불잡겠다.》 발광했다.

■ 지난 5월 30일 오후, 왕청현 파룬궁학원 장계분 부부가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상세한 정황은 파악중에 있다.

■ 2006년 4월 돈화시 복강가 파출소악경들이 석국군, 상청, 영파 등 18명 파룬궁학원들을 불잡아 갖은 박해를 감행했다. 그해 12월 중순 돈화시 중급법원에서 리상청과 석국군에게 각각 4년과 3년 판결을 내렸다.

중공악당은 지금 죽음의 변두리에서 최후발악하며 파룬궁을 계속 박해하고 있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즉각 박해를 중단하기 바란다.

악보받은 훈춘시 법원원장 왕해기

훈춘시 법원원장 왕해기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활동에 앞장서서 무고한 파룬궁학원을 불법적으로 강금하고 판결했다. 악보를 받은 그는 100만원 횡령죄로 지금 연변중급법원에 기소되어 판결대기중에 있다.

연길시하남파출소, 간수소악인방



김경범	연길시하남파출소 소장	2953123
왕복생	연길시간수소 교도원	2611964
하학성	연길시간수소 부대장	2658325

선보(善報)를 받은 공안국장

동북 모 지역의 한 공안국장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후에 대법제자들이 그에게 진상을 이야기해주었고 선악엔 보응이 있다는 도리를 알려주었다.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느낀 그는 다시는 대법제자를 랍치하지 않았고 대법제자들이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보고도 못본체 했다.

어느날 출장갔다가 오는 도중에 차사고가 생겨 차안에 앉았던 사람들은 죄다 사망되었지만 그는 대법이 좋다고 둑념하였기에 다만 특골을 상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되었다. 대법제자들이 병원에 병문안갔을 때 그는 대법제자의 손을 덥썩 잡고 《법륜대법이 정말 좋아요!》 하고 감격되어 말했다.



무엇 때문에 퇴당은 매 사람의 생사존망의 대사에 관계 된다고 하는가?

중국대륙에서 사람마다 거의 당원、단원、소선대원이다. 대기원신문은 1월 13일 정중성명에서 세상사람들에게 경시(警示)하였는바 『공산당의 말일은 곧 다가온다. 그러나 이 사악한 당(마교)은 역사상에서 중생에 대하여 신불(神佛)에 대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다. 신은 꼭 이 악마를 청산할 것이다. 만약 어느날 신이 인류의 누구더러 공산당을 청산하라고 할때 꼭 그런 이른바 견정한 사악한 당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중공이 정권을 탈취한 이래 중공의 박해로 6천만내지 8천만명이 사망하였다고 중공은 스스로 승인하였다. 당신은 비록 친히 살인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가입한 이 사교조직은 매일 끊임없이 살인하고 있으며 각종 수련인을 박해하고 있고 각종 천리에 어긋나는 나쁜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것에서 퇴출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것의 하나의 성원이고 하나의 립자가 아닌가? 당신은 죄가 있는것이 아닌가? 누가 퇴출하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 재난과 화가 미치고 그것과 함께 멸망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번 퇴당은 신이 당신에게 준 기회가 아닌가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다른 한면에서 볼 때 가령으로 퇴당, 퇴단하는데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는가?

사실 3 퇴는 자신을 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관념과 공산당이 선전하는 무신론에 저애받지 말라. 《머리석자위에 신령이 있고》 《선악는 보응이 있다》는 이것은 모두 선조들의 훈시이다. 우리는 탈당에 대하여 절대 홀시할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정한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길 바란다.